

# 牛의 遲産 (Retained birth)에 대한 人工分娩 處置一例

소의 임신기간은 그 종류와 母牛의 연령 또는 胎仔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나 대체로 290일이 초과하면 遲産 (retained birth)이라 한다.

최근 필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한에는 母牛 (韓牛 8才)는 과거 6회 정상분만을 하였다고 하는데 축주의 稟告에 의하면 분만 예정일때 한번 유방과 외음부의 종장과 점액의 배출이 있었으니 축주는 분만정후인줄 믿었으나 수일내로 그 징후는 퇴조하여 그후 20여일 지나도 아무런 분만징후가 없으니 일차 왕진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역시 축주의 임신기간의 오차가 아닌가 하고 반신반의도 하였으나 현지에서 종합 진찰결과 는 축주의 주장대로 信從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는 분명히 遲産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 初診時의 症狀 및 處置

T. 38.5°C, P. 95, K. 20, 복위팽대는 물론 유방 종대와 직장검사로 胎仔過大와 생존함을 알수 있었고 태동은 원만하였다. 필자는 우선 Estron.3.0ml를 筋注하고 멸균생리식염수, 1.0ℓ를 자궁경관내에 주입하고 遲産의 人工분만을 위한 금후 대책을 강구하였다.

### 2 診時의 症狀 및 處置

전일과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재차 전일과 같은 요법을 반복하였다.

### 3 診時의 증상 및 처치

T. 38.6°C, P. 97, K. 23. 전일보다 유방이 약간 下垂腫大하고 자궁질부의 충혈을 볼수 있었으나 자궁경관 확장기로 경관개장을 시도하고 부신피질 Hormon제인 Oradexon 40mg, 근주하였다.

### 4 診時의 증상 및 처치

T. 38.4°C, P. 102, K. 28, 早期에 축주의 황급한 연락을 받고 현지에 갔더니 식욕전무 불안, 起臥反復. 尾를 자주 흔들면서 분만징조가 뚜렷하므로 질검사를 한바 벌써 파수하여 태자 두부와 전지를 촉지할수 있었으니 진통촉진을 위해서 Oxyton



전 창호 가축병원  
원장 전 창 호

10.0ml, 근주하고 양전지에 산과용 Chain을 부착하여 견인하므로써 간신히 분만을 마쳤다.

분만후는 모우에게 강심제, 항생제와 함께 C. D. P. 500ml를 靜注하고 2% Boric acid, 2,000ml를 子宮洗滌하고 자우는 질식 일보전에 있었으나 분만 즉시 燒酒 일체를 전신에 살포 마찰을 하였던바 얼마후에 의식을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발육할수 있었다.

### 참 고

이 人工분만 전후에 참고한 각종 문헌과 금차의 체험을 통해서 참고가 될것이 있다면

1) 분만촉진제으로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지산처치에 있어서는 수의임상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난포Hormon, 뇌하수체 후엽Hormon등 단순한 약물요법만으로는 자연산도의 분만은 期待難이라 할수 있겠고 자궁내에 멸균생리식염수의 주입 또는 태막천자등 물리적 자극을 직접 자궁에 가하는 방법 이외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2) 자궁경관의 개장이 불완전 할때는 42~43°C 멸균온수의 질내주입 또는 자궁경관 확장기나 手指로 頸管開張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에서는 최근 320일이 넘는 지산우에 부신피질Hormon을 1~2회 투여하여 무난히 人工분만에 성공한 것을 고려하면 제왕절개수술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 종래의 견해는 수정할수 있다 할것이며 遲産도 정상분만때의 분만유발과 같이 부신피질Hormon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